



우리가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2004 Autumn Vol.20



여는글

# 기러기들의 비행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기러기들이 V자를 만드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때는 그냥 날아갈 때보다 7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치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를 바꾸어가며 여행을 한다.  
그 덕분에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다.

기러기들은 또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한다.  
만약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해 비행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서너 마리가 낙오자와  
함께 머문다. 기러기는 동료의 불행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

기러기들로부터 큰 교훈을 얻는다. 인생은 독창이 아니다.  
인생은 합창이다.

인생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 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에  
게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사람들이 서로 시련을 막아주기 위해 노력하면 세상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

# 2004년 가을

....여느글- 기러기들의 비행

## 04 .... 센터로 가자

....>>> 충청남도청 소년자원봉사센터

## 05 .... 프로그램 돌보기

....>>> 장애우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 2004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09 .... 쉬어가는 페이지

....>>> 올림픽이야기

....>>> 가을철 상식

## 13 .... I'm teenager~

....>>>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 3인

....>>> 중학생 창업 1호

## 17 .... 청소년 진로정보

....>>> 수시에 필요한 서류 준비

## 19 .... 직업의 세계

....>>> 여성에게 유리한 유망직종

## 20 .... 봉사활동체험수기

....>>> 장애우와 함께하는 봉사캠프 - 성봉학교 이춘형

....>>> 청소년 해외봉사단 - 충남예술고등학교 김 진

....>>> 청소년 해외봉사단 - 충남예술고등학교 정우림

....>>> 여름문화학교 - 정안중학교 이흥미

....>>> 금강생태체험 - 연무여자중학교 양허림

## 23 .... 사진으로 보는 봉사활동

손길나눔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계간 발행됩니다.

• 발행처 : 충청남도청 소년자원봉사센터 • 발행일 : 2004. 9 • 비매품 • 편집·디자인 : 신세계 커뮤니케이션즈 Tel.(042)636-8955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 어디에 있지요?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40번지 2층에 있지요!  
음~ 그리고 소식지 맨 뒤를 보세요. 약도가 그려져있어요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_\_^



## 무슨 일을 하는 곳인데요?

1. 청소년봉사활동 수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4. 청소년봉사활동 기록유지 및 관리, 확인서 발급
  5. 청소년육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역사회발전 운동전개

우아~ 너무 어려운 말이당~ ㅋㅋㅋ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원 봉사 활동거리를 함께 계획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 봉사활동을 확인도 해주고, 우리동네, 옆동네, 아래동네, 윗동네에 혹시 봉사활동 할 곳이 있는지... 도움드릴 분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요! 또 청소년 행사나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동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홍보하기도 해요~ 음! 그리고 봉사활동이란 무엇인지 ~ 학교에서 교육도 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육 때 만날까요? ^^\*



## 어떤 선생님이 계시지요?

- 이성구 소장님
- 이선열 운영요원
- 이영희 사무국장님
- 김영이 운영요원
- 오제상 운영부장님
- 한난신 운영요원
- 이영미 행정요원



## 장애우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 ■ 목 적

장애청소년에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응능력 제고와 사회적 낙인감 해소를 통한 장애 청소년 인권신장 및 복지증진, 우리 사회의 장애 및 소외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

### ■ 추진방향

- 청소년자원봉사정신 함양과 공동체정신 함양.
-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체험활동을하며 장애우에 대한 인식의 전환한다.
- 현장체험 및 바다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 ■ 추진계획

1. 사업명 : 바다 체험활동
  - 가. 일시 : 2004. 9. 15(수)
  - 나. 장소 : 무창포 해수욕장 / 서천해양박물관
  - 다. 대상 : 총 270명
    - 공주정명학교(중등/고등/전공부) 170명
    - 도내 청소년자원봉사자 80명 - 지도자 20명
  - 라. 내역 :
    - 백사장체험활동(우리모두 하나되어) 레크레이션
    - 서천해양박물관 견학 및 체험활동
2. 사업명 : 동물원 견학 및 체험활동
  - 가. 일시 : 2004.10.6(수)
  - 나. 장소 : 대전동물원
  - 다. 대상 : 총 195명
    - 공주 정명학교(유치/초등) 85명
    - 도내 청소년자원봉사자 90명 - 지도자 20명
  - 라. 내역 :
    - 사파리 관람 - 동물원관람 및 놀이시설체험활동
3. 주 최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4. 주 관 : 충청남도

### ■ 기대효과

- 비장애 청소년들이 장애우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 및 인식변화 효과 거양
-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염려할 줄 아는 동료애를 느끼며, 단결력, 조직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역할 습득
-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 능력 및 참여기회 제공
- 장애청소년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기회 제공

### ■ 세부추진계획

바다 체험활동 / 9월 15일(수요일)

일시	내 용
08:30~09:00	인원점검 및 출발
09:00~10:30	이동 및 무창포해수욕장 도착
10:30~12:30	백사장체험활동(우리모두 하나되어) 레크레이션
12:30~13:30	점심식사
13:30~14:20	이동 및 서천해양박물관 도착
14:20~15:30	서천 해양박물관 견학 및 체험활동
15:30~17:00	이동 및 학교도착

※우천시 서천해양박물관 · 보령 석탄박물관 관람으로 대체됩니다.

대전동물원 견학 및 체험활동 / 10월 6일(수요일)

일시	내 용
09:00~09:30	인원점검 및 출발
09:30~10:30	이동 및 대전동물원 도착
10:30~12:00	사파리 관람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동물원관람 및 놀이시설이용
15:00~15:30	집결 인원점검 및 출발
15:30~16:30	학교도착 및 해산



# 2004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1. 목 적

---

- 다양한 자원봉사의 체험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인성함양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와 활성화
- 모범 청소년을 선발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시적인 모델제시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및 관련 우수작품 표창
- 우수청소년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실시로 봉사활동 참여동기 강화

## 2. 기대효과

---

-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활성화가 기대되며
- 지도교사 및 청소년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 나. 공연부문

- 일시 : 2004년 11월 6일(토) 14:00~14:30, 16:30~17:00
- 장소 : 부여청소년수련관 실내경기장
- 내용 : 공연봉사활동 우수자 초청공연  
 ●수화공연 ●댄스공연 ●사물놀이 ●초청공연 등

## 다. 전시부문

- 일시 : 2004년 11월 6일(토) 13:00~17:00
- 장소 : 부여청소년수련관 실내경기장 부스설치
- 내용 : 개인·동아리 수상자 활동내용 홍보, 수상작 전시, 관련작품 전시 등

## 라. 시상부문

- 일시 : 2004. 11. 6(토) 14:30~16:30
- 장소 : 부여청소년수련관 실내경기장
- 내용 : 부문별 시상

## 8. 시상내역

부 문	구분	문화관광부장관상	충청남도지사상	충청남도교육감상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상	소계
개 인 봉사활동	중	1	1	4	3	9
	고	1	1	4	3	9
동 아 리 봉사활동	중	1	1	4	3	9
	고	1	1	4	3	9
체험수기	중	·	1	1	3	5
	고	·	1	1	3	5
만 화· 컴퓨터그래픽	중	·	1	1	3	5
	고	·	1	1	3	5
훈격별 시상수		4	8	20	24	56

※응모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9. 응모방법

- 접수마감 : 2004년 9월 18일 12: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주 소 : 논산시 내동 840 320-030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10. 심사

### 가. 1차심사(서류)

- 일 시 : 2004. 9. 25(토) 서류 및 작품심사

- 장 소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교육실

- 심사기준

- 개인·동아리 봉사활동부문 - 동기 및 창의성, 노력·지속성·적극성, 지역사회 공헌도·파급, 개인적 성장
- 체험수기 부문 - 감동성, 활동내용, 구성력, 사실성
- 만화·컴퓨터그래픽부문 - 작품성, 구성, 감동성, 계몽성

### 나. 2차심사(면접)

- 일시 : 2004. 10. 2(토) 봉사자, 동아리부문 면접심사(해당자 추후 연락)

- 장소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교육실

-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점
동기 및 창의성	• 참여동기 • 창의적 아이디어 • 준비내용	25
노력 및 지속성	• 구성 진행방법 • 지속성 •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25
지역사회 공헌도	• 목표 달성도 • 지역사회 공헌도 • 파급효과	25
개인적 성장변화	• 봉사활동 관련 지식 • 인간관계 성립 • 봉사활동 의미 인식	25
계		100

다. 심사발표 : 2004. 10. 7(목) 홈페이지(www.bongsai.or.kr) 및 해당 학교에 통지

## 11. 참가신청서 및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 실시내역에 기록하는 활동기간은 2003. 10 ~ 2004. 9월까지로 해당 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 2004년도 타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동일한 내용(작품)으로 출품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출품작은 보조기억장치(디스켓, CD-ROM 등)에 저장하여 출력물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만화의 경우 작품만 제출하여도 됨)
- 사진이나 그림 삽입시 용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정해진 공간에 자신의 활동사항을 전시하여야 하며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12.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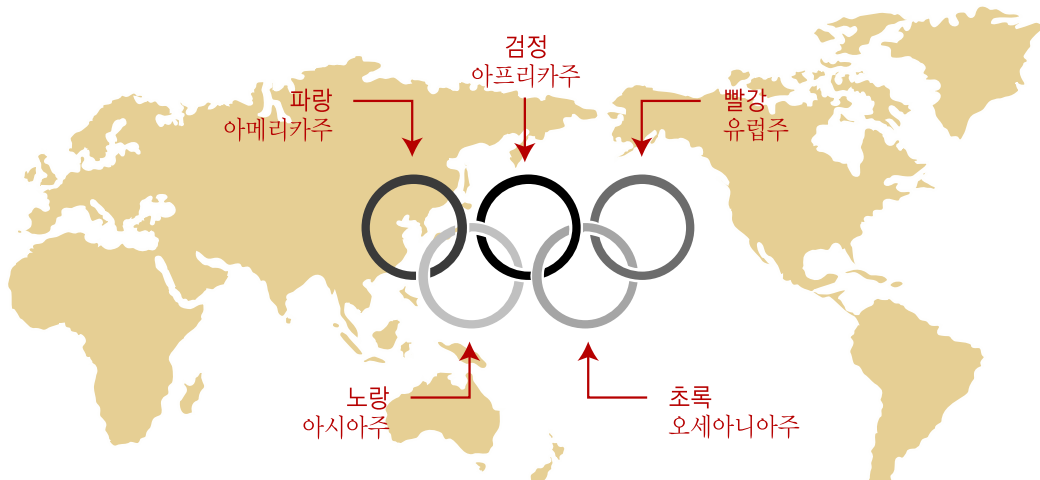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장학사 이 옥 주 ☎ 042-580-7233,4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정보팀장 이 선 열 ☎ 041-736-9003,4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가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고대 그리스 제전경기의 하나인 올림피아제(祭)에서 비롯되었다. 이 스포츠제전을 근대에 부활시키기 위하여 프랑스의 귀족 P. 쿠베르탱 남작이 제창, 1896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근대 스포츠는 19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조직되어 시설 개발에 힘쓴 미국의 육성으로 발전·보급되어왔는데, 이러한 각종 스포츠를 종합적으로 겨루는 것이 올림픽이다. 쿠베르탱은 프로이센-프랑스전쟁(1870~71)에서 패배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주장하던 중,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지향한 고대 그리스의 체육에 매혹되어 1894년 IOC를 창설하고, 전세계 청년의 평화의

전당으로서 올림픽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여는 데 성공하였다. IOC는 모든 나라에 올림픽 참가를 권유하고, 또 종교·인종·정치에 의한 차별대우를 엄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가의 항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올림픽을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20세기 초부터 경기별로 각각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F)을 조직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기규칙을 규정하였다. 근년에 와서 올림픽대회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어 그 전통이 동요되었던 적이 있었다. 1980년의 모스크바대회에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여러 나라가 불참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에 대항이라도 하듯 84년의 로스앤젤레스대회에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참가입국이 나왔다. 또한 올림픽대회에 대해 국제경기연맹이나 각국의 국내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의 발언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IOC가 공인하는 지역대회(아시아경기대회·팬아메리카경기대회 등)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경기대회가 올림픽을 유일한 본보기로 삼는 것은 변함없다. 더욱이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에는 동서 양진영에 속한 나라들 대부분이 참가함으로써 정치색채를 띤 절름발이 올림픽대회가 아닌 본연의 올림픽대회로 과거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다.



오른기는 올림픽 상징(Olympic Symbol)이 그려져 있는 기를 말합니다. 이 올림픽 상징에 대해서는 올림픽 헌장 제12조(올림픽 상징)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올림픽 상징은 단색 또는 여러색의 다섯개 올림픽 고리만으로 구성한다.
- 고리의 다섯가지 색깔은 필수적으로 푸른색, 노랑색,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이어야 한다. 고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로 교차된다. 푸른색, 검정색, 빨간색 고리는 상단에, 노랑색과 초록색 고리는 하단에 위치한다. 전체 모양은 IOC본부에 보관된 공식디자인에 따라 하단이 좁은 이등변 사각형의 형태를 이룬다.
- 올림픽 상징은 올림픽대회에서 오대주의 결속과 전세계 선수들의 만남을 의미한다. 참고로 올림픽 상징에 들어가 있는 다섯가지 색은 각각 어떠한 특정 대륙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들어가 있는 색들 중 최소한 한가지 색은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올림픽에서 주는 금·은·동 그 많은 메달은 어디서 만드나요?



### 올림픽 메달의 제작

고대 올림픽에선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근대 올림픽에 들어오면서 승자에게 메달을 주었는데 현재의 금·은·동메달의 체계는 1904년 3회 세인트루이스대회에 들어서야 정립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은·동으로 구별한 이유는 고대로 서구사회에서 이 세 가지 재료가 동전으로 쓰였고 그 가치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달의 앞면엔 1928년 9회 암스테르담 대회 때부터 이탈리아의 주세페 카이올리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의 상이 지금까지 새겨지고 있습니다. ('니케'란 이름은 나이키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1960년 17회 로마대회에서 처음으로 목에 걸 수 있게 리본이나 사슬이 부착된 진정한 메달의 형태가 되었으며 1968년부터는 메달 뒷면에 각 종목의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4위에서 8위까지에게도 상장을 주었습니다.

1972년부터 각 조직위가 메달 뒷면에 재량으로 그림을 새길 수 있게 되었으며 동계올림픽메달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올림픽 현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이 최소한 60mm 이어야 하고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1등과 2등에게 주어지는 메달은 순도는 1,000분의 925 이상 순은이어야 하며, 1등의 메달에는 다시 최소한 6g의 순금이 입혀져야 합니다.

결국 하계올림픽 메달의 앞면엔 니케상이 새겨 있고 뒷면엔 각 주최국이 정한 도안이 들어갑니다. 동계올림픽은 주최국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후 권리를 이양받는 NOC(국가 올림픽 위원회)와 대회 조직위가 나라의 조폐기관과 함께 제작하게 됩니다.

##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의 유래는?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만들어준 것이 유래다.

월계수는 고대 그리스신화 속의 아폴로 신과 얽혀 있다. 요정 다프네가 아폴로의 끈질긴 구애를 피해 달아나다 월계수 나무로 변하자 슬픔에 빠진 아폴로는 다프네를 기억하기 위해 월계수잎을 사시사철 푸르게 하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태양·음악·문학의 신 아폴로는 올림픽을 대표하는 신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조직위는 고대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 아폴로와 아테네의 수호신인 여신 아테네를 본뜬 마스코트를 만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종목별 메달리스트들에게 메달과는 별도로 월계관과 떡갈나무를 심은 화분을 수여했다고 홈페이지([www.olympics.org](http://www.olympics.org))에서 밝히고 있다. 월계관은 이후 올림픽의 꽃인 육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라톤에 남아 우승자에게 상징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기록한 경기는 제14회 런던 하계올림픽대회라고 한다. 역도 미들급에 출전한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에 출전한 한수안이 나란히 동메달을 딴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태극기를 앞세우고 선사한 첫 메달이라고 한다.

1948년 07월 29일 ~ 1948년 08월 14일까지 경기가 열렸던 14회 대회에 우리나라는 7종목, 육상, 축구, 농구,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등에서 선수 50명, 임원 17명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해방되고 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된 우리선수단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하였고 비록 금메달은 아니지만 동메달을 걸고는 목이 메어 한참이나 울었다고 한다.

아직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적 이야기이나 아마도 지금 금메달을 따고 감격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야단을 떠는 것 못지 않은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요사이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

도 흔해졌지만 당시의 여건을 감안 할 적에 당시의 동메달은 지금의 금메달보다 더 값진 메달이었을 것이다 일본 강압에서 해방되고 우리태극기를 앞세운 대회에서 처음의 메달이라면 그 의미도 지금의 금메달 못지 않을 것이다.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의 감격과 진한 감동의 한 장면이 연출되었으리라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우리는 이러한 감격의 그 감동을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느꼈으면 좋겠다.

## 올림픽 역사상 재미있는 선수와 사건

### 상식 밖의 수영경기장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수영이 바다에서 열렸다. 피레 만에서 열린 이 대회 수영에서는 스피드보다는 파도를 넘는 기술이 중요했다. 제2회 파리 올림픽의 수영은 센강에서 열려 유람선을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유머도 있었다.

### 이색 종목들

제2회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색 종목들이 치러져 올림픽 역사가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이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은 낚시, 연날리기, 대포 발사, 당나귀 타기, 당구. 특히 이 대회는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없었고, 5월20일에서 10월28일까지 무려 5개월간 간간이 경기가 진행되는 식이었다. 쿠베르탱은 대회가 끝난 후 “올림픽이 이런 대회를 거치고도 살아남았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탄식했을 정도.

### 가장 살벌한 올림픽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해 대회가 24시간 동안 중단되고 인질 전원과 테러범 5명, 서독 특수부대 요원 1명 등 모두 17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긴 사격의 리호준은 우승 소감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쏘았다”는 발언을 해 당시 기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 부끄러운 마라톤 우승자들

미국의 프레드 로츠는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에서 경기도중 버스를 얻어 타고 움직여 금메달을 박탈당했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피에트리도란도가 결승전 바로 앞에서 지쳐 쓰러졌지만 심판들이 도와줘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금메달은 곧바로 회수됐다.

### 올림픽 사상 최장의 경기시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는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레슬링 경기를 한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레코로만형 중량급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마틴 클라인이 핀란드의 아시카이넨과 11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여 승리를 거뒀다. 두 선수는 30분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했지만 승자인 클라인은 탈진해 결승전 참가를 거부했다.

### 엽기 수영선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적도 기니 출신의 에릭 무삼바니는 해수욕장에서나 입는 혈령한 트렁크 차림으로 ‘개헤엄’을 쳐 화제가 됐다. 그는 1분52초72를 기록해 예선 1위로 골인한 피터 호헨반트(네덜란드)의 48초64보다 무려 1분04초08이나 뒤졌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완주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대회 최고의 스타가 됐다.

### 재미있는 선수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미국출신의 찰스빈치란 선수는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 비해 자신의 몸무게가 200g 초과임을 알게되어 머리를 최대한 짧게 잘라 몸무게를 줄여 출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 정말 불행한 선수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어느 한 선수는 사이클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튀어나온 심판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또 다른 경기에서 또 어느 심판이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친 일이 있었습니다.

# 가을(秋)

열매를 갓(�,切)다. 갓 + 을 (�을) = 가솔=가을  
 추수(秋收) ; 가을에 (열매)를 걷우다  
 가실하다(\*남부방언) ; 추수하다.  
 가살, 가솔, 가실, 가알, 가을.

## 가을철에 단풍이 드는 이유는?

가을철 우리 나라의 단풍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온대지방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화사하게 물들고 추운 겨울이 가까워지면 시들어 떨어진다. 잎은 어떻게 해서 빨갛고 노랗게 물이 드는 것일까?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이 되면 공기가 건조해진다. 이때 나뭇잎은 일차적으로 수분부족을 겪게 된다. 잎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뿌리로 빨아올린 물로 생물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만든다. 바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대기 속으로 뿜어내야 한다. 한 예를 들면 옥수수는 낱알 1kg을 얻기 위해 앞에서 600k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나뭇잎은 수분의 부족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활동을 멈춘다.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도 빛을 흡수하는 색소로 70여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이들 중 붉은색을 띠는 게 카로틴이고 노란색을 띠는 게 크산토페일이다. 이들 색소는 잎이 왕성하게 일을 하는 여름에는 많은 양의 엽록소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는다. 차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잎에서 엽록소가 분해돼 사라짐으로써 이들 색소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이들 색소의 분포에 따라 노란색이나 붉은색 등 단색에서부터 혼합된 색의 단풍이 든 잎을 우리는 보게 된다.

특히 단풍나무는 잎이 물드는 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가을에는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코르크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코르크층은 잎에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당류(설탕)가 줄기와 뿌리로 운반되는 것을 방해해 잎에 쌓이게 한다. 이 설탕이 잎에서 분해되면서 빨간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져 세포액에 저장됨으로써 타는 것 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다.

서리가 내린 뒤 따뜻하고 맑은 날이 당분간 계속되면 단풍나무 잎은 매우 곱게 물든다. 단풍이 물든 가을산, 봄을 위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려는 나무들의 준비를 보면 자연은 잔인한 것 같기만 하다.

#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 3인

중·고등학교 하면 으레 교복을 입고 큰 가방을 멘 채 등교해서 학교 수업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2004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르다.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는 하나의 선택이 돼 버린 요즘, 자기만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몇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을 만나봤다.

## 고교생 판타지 소설 작가 김다호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취미로 인터넷 작가 동호회에 연재한 판타지 소설들이 인기를 끌면서 책까지 내게 됐어요.”

까까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지닌 김다호(18·인천 부광고 3)군은 장편 무협 판타지 소설 ‘흑풍(해우·2002)’과 ‘서먼 마스터(채널21·2004)’로 판타지 매니아들 사이에선 꽤 알려진 4년 경력의 작가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판타지 소설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김다호 군은 2학년이 되면서 아마추어 작가들이 활동하던 인터넷 사이트 삼룡넷(www.3dragon.net)등에 직접 쓴 판타지 소설을 올리기 시작했다. 김 군은 “첫 글인 ‘무명 판타지 소설’처럼 완결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인터넷에 연재한 소설만 100편도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 소설이 모두 인기를 끈 건 아니지만 판타지 소설 ‘산동약가’의 박신희 작가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쓴 ‘흑풍’을 눈여겨 보셨다가 출판사에 소개해주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식으로 출판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부모님이 처음엔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으셨지만 서서히 제 글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저를 믿어주기 시작하셨다”며 “지금은 가장 큰 후원자”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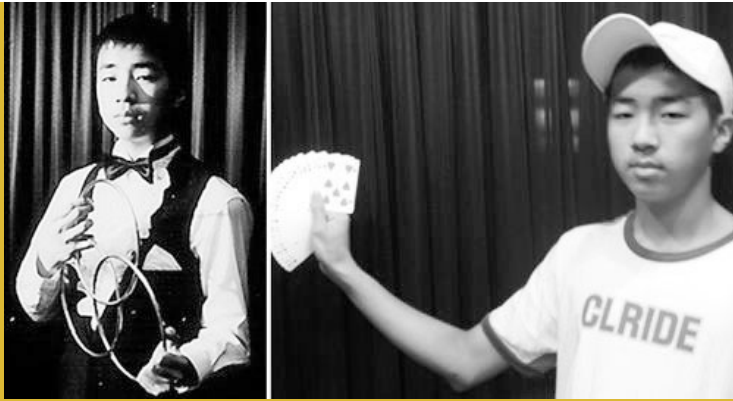
현재 유조아닷컴(ujoa.com)에 ‘서먼 마스터’와 ‘판타스틱 윈드’를 연재중인 그는 지난 6월 서먼 마스터 1·2권을 냈고, ‘판타스틱 윈드’도 이미 출판사와의 계약을 끝낸 상태. 김 군은 자신의 소설들이 왕성하게 출판되는 이유로 “주인공이 동물이지만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평범한 스토리라도 특이한 소재를 이용해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고 자평했다.

최근 귀여니를 비롯해 나이 어린 인터넷 작가들의 등장으로 소설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가벼워졌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선 “작가층이 넓어지다 보면 점차 수준있고 깊이있는 작품도 생길 것”이라며 “오히려 인터넷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군은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며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주로 독서를 통해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글을 쓰고 학교 수업 외 나머지 시간에는 매일 2~3권의 책을 읽는다”며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섭렵하지만 특히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말했다. 학교 생활과 글쓰기를 병행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지만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고.

최근 글쓰기 특기를 인정받아 인하대 동양어문학부에 수시로 합격한 김 군은 “지금까지 판타지는 서양의 것이 주로 인기를 누렸지만 저는 동양적 판타지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동양 역사도 많이 알아야겠죠?”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고교생 마술사 박예슬



“처음 마술극장 무대에 섰을 때 긴장되고 떨렸던 느낌, 공연을 끝낸 후 박수를 받을 때의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국 마술협회, 테이블 위에 반듯이 놓여있던 52장의 카드가 고교생 마술사 박예슬(16·한광고 1)군의 손가락 사이에선 순식간에 색깔이 바뀌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훌쩍러졌다. 방과 후 곧장 달려와 마술 연습을 시작한 박 군은 “아직 멀었어, 연습 더 해야겠다!”고 호통치는 스승 정은선 마술협회회장의 엄한 지적에도 미소로 일관하며 이리저리 카드를 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박예슬 군은 지난 5월 ‘코리아컵 매직 콘테스트’의 최연소 출전자로 주목받고 지난 해 일본 ‘JCMA 컨벤션’ 국제 마술대회에서도 격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 마술계의 꿈나무다.

박 군이 처음 마술에 눈을 뜬 것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02년 말, 어머니 이경형(41)씨의 손에 이끌려 지금의 스승인 정은선 회장을 만난 게 계기였다. 당시 이씨는 공부엔 흥미가 없지만 손재주가 좋은 아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생각으로 박 군을 정 회장에게 데려갔다고 한다.

어릴적 부터 소심한 성격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는 고개도 못들던 박 군이 마술을 배우는 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매일 수업을 마치는 대로 마술협회로 달려온지 석달 가량 지나자 박군은 마치 ‘마술에 걸린 듯’ 수강생들 사이에서 내노라할 수다쟁이가 됐다. 어설픈 마술

도 과감하게 선보일 수 있는 자신감까지 갖게된 박 군은 작년에 처음 마술협회 지하의 마술극장 무대에 올라 재미있는 마술과 관객을 휘어잡는 화술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마술을 배운지 1년만인 작년 12월엔 일본에서 열린 ‘JCMA 컨벤션’에도 출전해 격려상까지 받았다. 당시의 소감을 묻자 “어떤 마술에도 큰 호응과 박수를 보내는 일본 관객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나라서도 마술사에 대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기 보다는 ‘재미있게 즐기자’는 열린 마음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엔 관객의 눈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클로즈업’ 마술과 아무것도 없는 손에서 카드가 쏟아져 나오는 ‘매니플레이션’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는 박군. 그는 여전히 학교에 있는 시간을 빼곤 대부분의 시간을 마술 연습에 쏟고 있었다. 가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쉬운 마술을 가르쳐 주거나 마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상담해주기도 한다고.

“아직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은 마술을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처럼 마술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일찌감치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다는 박군은 “전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멋진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 중학생 창업 1호 다드림 커뮤니케이션

‘벤처 갑부’들의 성공담은 이제 10대들에게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어린 애들이 무슨 사업이냐”며 ‘아이들 장난’ 쯤으로 치부하면 큰 오산. 이제 웬만한 어른들도 부러워할만한 성공한 ‘10대 사업가’들이 나오는 세상이다.

예컨대 도메인의 등록, 양도, 중개 등을 서비스하는 (주)다드림 커뮤니케이션([www.gooddns.com](http://www.gooddns.com))은 건국 이래 첫 중학생 창업 케이스. 서울 윤중 중학교 3학년예 재학 중인 표철민(15·사장) 군을 비롯해 고성훈(14·마케팅 이사), 정호준(15·회계)군 등 같은 또래 중학생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회사다. 당초 표군이 지난 4월 창업을 했다가 7월19일 법인으로 전환했다.

다드림 커뮤니케이션은 창업한지 불과 4개월 남짓하지만, 주변의 집중한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의 지난 2분기 매출액만 6800여 만원. 당기 순이익도 1900 만원을 기록해 알찬 회사로 커가고 있다.

이 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도메인 등록 등으로 받는 수수료. 등록해주는 도메인 한건당 1만 8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지난 4월 창업 후 등록해준 도메인 수만 4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외국에서 거래문의도 많이 들어와 사업상 이 메일을 주고받느라 본의 아니게(?)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 회사의 설립과 구상은 사장인 표군이 주도했다. “머리가 비상하고 시장 상황 파악이 빠르다”(고성훈 마케팅 이사)고 동료들이 평가하는 표군은 이미 회사를 차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도메인 등록을 중개해 주며 돈을 벌만큼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고 한다. 표군은 “작년 7월쯤 도메인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인터넷 사업에 도메인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달은 것”이 사업 시작 동기였다고 말했다. 다드림 커뮤니케이션의 자본금 5000만원도 표군이 번 돈 1900만원과 부모의 돈을 보태 마련했다고 한다.

표군은 지난 4월 자신이 보유한 독도 도메인([www.tokdo.co.kr](http://www.tokdo.co.kr))을 독도사랑동호회에 기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자리잡은 다드림 커뮤니케이션의 15평 남짓한 사무실은 컴퓨터 2대와 TV, 팩스, ‘사업자 등록증’ 등 여느 회사와 다른없는 외양이다. 하지만 현관에는 자가용 대신 임원들이 사용하는 키보드가 있어 역시 N세대 회사답다는 인상을 풍긴다. 요즘 이 회사에는 “함께 일하고 싶다”거나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얻었다”는 등 동료 10대들의 격려와 호응이 쇠도하고 있다. 다드림측 역시 신입사원 채용은 10대들을 주대상으로 할 것이라 한다.

출처: 주간조선 (2000. 08. 31/1618호 경제면)





---

# 수시에 필요한 서류준비

---



기 소개를 하  
글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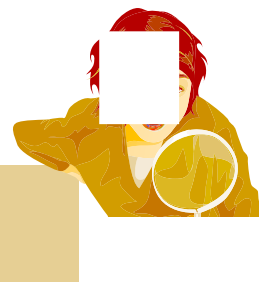
관계를 고려하면서 쓰

경험을 쓰라는 이유  
는  
는 것이다. 자신이  
라 그 책  
에게 어떤 영향  
. 과거의 사  
나, 그리고

### 3. 스스로 지원 동기를

지원하는 학과에 대  
를 공부하고 싶  
그 분야의 공부  
부하고 싶  
해서 모  
수도  
그

고 싶  
해야 하  
왜, 어떻게  
자신이 지원  
공부할 것인지  
를 해야하는지



# 여성에게 유리한 유망직종

여성의 치밀함과 세심함 그리고 차분함 등을 바탕으로 한여성 전문직종이 늘어나고 있다. 한 취업 전문업체 관계자는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은 여성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성 스스로가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유리한 유망직종을 알아본다.

## 〈컴퓨터 산업 베타테스터〉

주요 컴퓨터 관련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상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발견·조치한다. 프로그램의 오류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제시해야만 상품의 판매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증진시킬 수 있다. 컴퓨터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 및 프로그래밍 능력이 높은 사람은 도전해 볼 만하다.

## 〈정보시스템감사사〉

정보처리가 전산화되고 재무, 회계, 기타 경영자료 등 기업 및 기관의 각종 업무가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용되면서 등장한 직종이다.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구조를 감사한다. 감리업무는 크게 사업감리와 운영감리로 구분된다. 사업감리는 정보시스템이 정해진 규정대로 구축되고, 기술적으로 개인의 기밀보호와 오류에 대한 안전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 운영감리는 구축시스템이 표준성과 정보안전성의 기준에 따라 잘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시정하는 업무이다. 현재 정보처리기술사, 품질관리담당자, 회계사 등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급증하는 공공부문 감리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96년부터 한국전산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음악치료사〉

음악을 이용해서 우울증·자폐증 등 정신적질환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 치료대상자와 함께 각종 악기를 연주하거나 연주모습을 지켜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뒤 질병의 특성에 따라 음악적 치료법을 수립·시행한다. 연주능력 뿐만 아니라 음악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

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현재 10여명 정도의 음악치료 전문가들이 정신병원이나 개인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 발급하는 공식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없지만 몇몇 대학교에서 음악치료대학원을 개설해 놓고 있다.

## 〈호스피스(Hospice) 전문 간호사〉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증상 완화 및 통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가족·전문의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음악치료사·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팀을 이뤄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병실에 들러 해당 환자를 간호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호스피스 간호사 양성교육과정도 개설돼 있다.

## 〈조향사(調香師)〉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향기와 냄새를 혼합해서 새롭고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 낸다. 현재 국내 화학회사와 화장품회사의 부설 연구소나 관련 부서 등에서 30여명 정도의 조향사가 일하고 있다. 후각에 남달리 민감하고 예술적 감각 및 유행에 대한 인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적합하다



###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면서

2004년 7월 22일, 나를 비롯한 네명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집합했다. 공항에는 이미 다른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중 충남센터라는 소조직에 속해있었고 우리가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아이들인것과 같이 그곳에 모여있던 아이들도 사물놀이, 태권도, 그룹댄스 등 여러분야에서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하고있는 아이들 이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어쩌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법한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마냥 놀러가는 것처럼 설레이기만 하고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걱정만 했던나는 나외에 같은목적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것을 보고는 잠시 긴장이 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청소년 자원봉사단원이라는 사실에 어설픈 자부심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간단한 발대식을 갖고 카자흐스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된것과 같았다.

### 우슈토베에서

마야라는 고려인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착한 그곳엔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있었다. 좀 낙후된 곳 이였었지만 타국에서 우리와 닮은사람을 만나고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는것이 그리 반가울줄은 몰랐다.

그날밤, 우리는 민박을 하게되었다. 나는 따나라는 고려인아이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민박집은 조금은 충격적인 곳이었다. 변변찮은 샤워실조차 없어서 어떤 나무로 세워논 공간안에서 씻고,전기도 들어오지않아 촛불을 켜놓은채 저녁을 보냈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또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들어설때부터 나설때까지 우리를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시던 따나의 부모님 두분은 행동하나하나 그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적지않은 감동을 안겨주셨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

### 공연봉사활동

총 세번의 공연을 하게된 우리는 시작부터 여러문제가 많았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끝마친 것에 대해서는 모두모두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전공을 하는것을 여러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는 일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타국에서 말이다. 고려인들을 위한 시청광장에서의 두번째 공연이 그러했다. 비록 공연장 시설은 열악했지만 현지인들이나 고려인들의 반응은 그 모든것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태평무-솔로-부채춤까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다 공연하고 힘이 빠진채 있었는데 뜨거운 환호와 기념촬영이 쇄도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웃음을 잃을 순간이 없었다. 당황스럽게도 볼에 키스하시는 아주머니를 비롯해 여

좋았다.

막상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분들께 우리무용을 알려 드리려 하니 여간 어려운데 아니었지만 '아리랑'이라는 우리민요를 이용해 수업을 하니 그나마 약간 수월했다. 거의 모든분들이 '아리랑'을 알고계셨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우리를 참 감동시켰다. 수업시작전에 '아리랑을 다같이 불러 봤는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다.

가르쳐 드린 것은 기본이랄것도 없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배우시려는 그분들의 열심 어린 모습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덩달아 나도 더 열심히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카자흐스탄 시간으로 제일더운 오후 4시경에 수업을 해서 금세 지쳐 앉아있다가도 그분들끼리 서로 모여 연습하시는 모습과 어느정도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수가 없었다. 특히 할머니들께서 열심이었는데 오실때마다 우리에게 과일을 갖다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나는 그분들로 하여금 한국무용을 더 좋아하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어딜가도 당당하고 멋있게 우리춤을 선보일 수 있는 힘이 생긴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꼭 카자흐스탄 뿐만아니라 타국에 있는 한국분들께도 우리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종종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교육봉사활동은 나에게 여러모로 값진 경험이었다.

### 자연체험활동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침블락'.

리프트를 몇번이나 갈아타고 올라간 그곳에서 수도인 알마티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고지대라 귀가 멍하고 조금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곳이었지만 아래를 내려다 보니 숨이 탁트이는것 같았다. 조금만 조용해도 한없이 한적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렇지만 만년설이 녹아내려 조금밖에 볼 수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다. 그렇지만 어딜가도 느낄 수 없을것같은 환상적인 자연체험활동이었다.

### 돌아오면서

잘 안갈 것 같던 9일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헤어질시간이 와서 섭섭했다. 역시 간단한 해단식을 갖으면서 여러선생님들께 참 고마운 마음을 느꼈고, 처음만나서 9일을 같이 지낸 아이들에게도 역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청소년 해외봉사단원으로서 이번여름은 착하게 보낼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했고 이런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자주자주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운이좋아서 나에게 이런 기회도 또 오게 된다면 기꺼이 참가하고 싶다. 9일동안, 많이 즐거웠!

## 청소년 해외봉사단

### 충남예술고등학교 정우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카자흐스탄을 다녀와서...

이번 여름방학 중 8박9일 동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청소년봉사단이라는 이름을 걸로 국내도 아닌 국외로 봉사활동을 간다고 신청자를 받았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충남센터 대표로 5명이 가게 되었다.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말에... 봉사활동이란것 보다 그저 국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큰 상태였다.

카자흐스탄... 우리가 갈 목적지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말을 듣고 우린 하나같이 실망을 감출수가 없었다.

경제수준은 우리나라 70년대 정도이고... 백야 현상을 해는 11시가 되어서야 진다고 하고... 음식은 설명만 들어도 거부감 느껴지는 음식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정말 생각했던것처럼 실망이었다.

공항갈지도 않은 공항에... 알마티... 수도라는 곳이 썰렁하고.... 그런데 우리 말고도 카자흐스탄으로 발걸음을 내딛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야길 들어보니 선교하러 오신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의 이런저런좋은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하룻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

우리날이 밝고 첫번째 공연을 했다.

관객도 고려인들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았고, 관객수도 얼마 되지 않았다. 참 아쉬웠다.

내가 왜 이런데까지 와서 사서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곤 했었다. 그런데 순서가 하나씩 하나씩 끝날때 마다... 관객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고...

우리가 한 태평무 부채춤 창작 무용 등... 호응이 아주 좋았다. 항상 공연을 하고나서 받는 환호의 박수와 색다른 기분이었다.

머랄까... 더 감동이었다고 해야할까?

그렇게 첫번째 공연을 마치고 우리는 우수토베라는 지역도 다녀왔다. 거기선 현지인들 집에서 민박도 했는데... 난 고려인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당히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된다. 한국말을 하실줄아는 분들이었다. 참 신기했다. 이런 낯선 땅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보니 무척이나 반갑기도 하고 왜그리 낯설게도 느껴졌는지...

그렇게 우리는 우수토베에서 두번째 공연을 했다. 이번엔 야외 공연이었다.

시멘트 바닥에서 하는 공연이 매우 불만이 많았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야외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관객들도 생각보다 많았었다. 카작 전통춤도 보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에 대해 점점 익숙

해 저가는것 같았다..

처음엔 냄새도 역했던 음식들이... 맛있게 느껴지고...

불편했던 잠자리가 포근한 잠자리가 되고...그렇게 하루 하루가 지났다. 침블락 만년설도 보고 시창도 가보고...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내자신이 부끄러울정도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였다.

돌아오기 4일전부터는 고려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쳐 드렸다.

처음에는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이런저런 내 몸 생각만 하다보니 짜증도 났었다. 그런데 엄청난 열의를 보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들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늦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쉬는 시간에도 안쉬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나자신을 부끄럽게 했다. 난 덩다. 졸리다. 피곤하다. 이런저런 갖은 핑계들로 열심히 하지않고.. 반동떨매가 많은데... 이곳 할머니 할아버지들에서 최선이란 단어를 더 확실히 배워가는 것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는 돌아오는 날 교육원 공연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다.

기분이 새로웠다.

처음 공연할때는 정말 하기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짠데..

그땐 그 공연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

마나 절실했는지모른다.

우린 그날도 열심히 공연에 임했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때의 아쉬움이란 말로 표현 할수 없을정도로 컸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하는동안 같이 해주신 마야 할머니와 예직 아저씨가 밖에서 한참 동안 배웅해주시는 데.... 정말 슬펐다... 저분들 이제 다신 못볼게 분명할텐데... 우리 이제 비행기만 타면 이곳에서 좋았던 일들이 다 지난추억이 되버리는건데... 하는 생각에 정말 슬펐다. 그렇게 비행기 시간이 다되고.. 8박9일에 길으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봉사활동이 무용수를 향한 나의 꿈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진정한 무용수란 아무리 안좋은 환경이어도... 적은 수의 관객이어도...

최선을 다해 멋진 춤을 선사하는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우리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리고 온것 같아 뿌듯함도 크다.

마지막으로..... 느낀것은..... 나는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생각이 들었다.

카자흐스탄을 돌아보고 다른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의 차마끝 곡선보다 단정의 색보다도 더 아름다운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잊지 못할 2002의 추억이 될 것이다.

## 여름문화학교

### 정안중학교 이흥미

여기 오기 전에는 단순히 수련회 활동을 하며 노는 것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일정표를 보니 박물관 관람, 염색체험, 마술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봉사활동이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는 수련회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까지 봉사활동을 할 줄은 몰랐다. 첫째날에는 마술을 배우고 둘째 날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강의로 듣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할지 아이들과 고민해보았다. 나는 세가지 중에서 크리스탈페이퍼플라워를 했다. 이 꽃을 만들어 내

일 봉사활동 가는 곳에 계신 분들께 줄 거라고 했다. 드디어 마지막 셋째날이 왔다. 내가 가는곳은 논산에 있는 '작은 자의 집'이라는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다. 인사를 하고 우리가 만든 꽃 화분과 풍선, 부채를 나눠 드리고 했다. 풍선을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씩씩우고 풍용도 하고 마늘도 깎았다. 그곳에서의 3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져서 돌아오는 내내 아쉬웠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데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이번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정말 좋은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참가해서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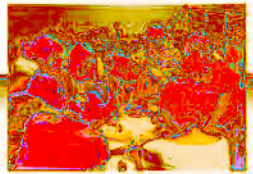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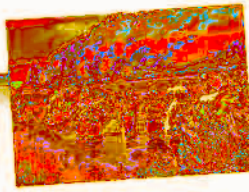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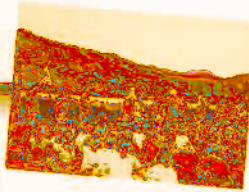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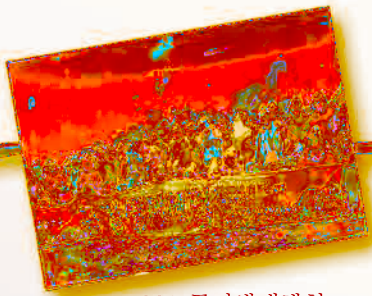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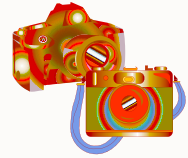
## 금강생태체험

### 연무여자중학교 양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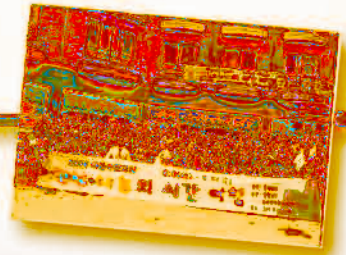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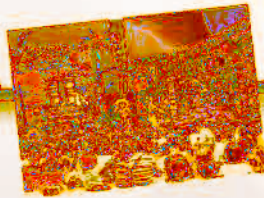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을 금강생태체험을 하며 보냈다. 금산의 한 야영장에서 머물렀다.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에 갔는데 샘이 너무 작아서 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작은 샘부터 시작해서 40km나 되는 금강이 만들어진다니 믿겨지기가 않고 신기했다. 1일에는 직접 강에서 물고기도 잡으며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잡은 물고기 중에는 피라미, 썩지, 미꾸라지, 붕어 등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었다. 직접 물고기도 잡고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에 대해 배우고 정말 기억에 남을 추억이었다. 이번 캠프에서 나는우리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여겨야 하는 것인지 알았다. 비를 맞으며 뜬봉샘을 견학했던 것은 힘들었지만 내 기억에 영원히 남을 알차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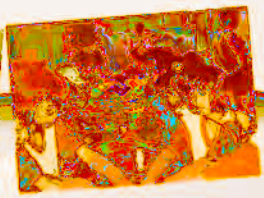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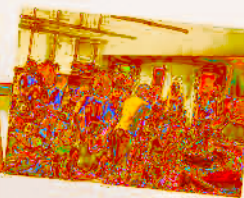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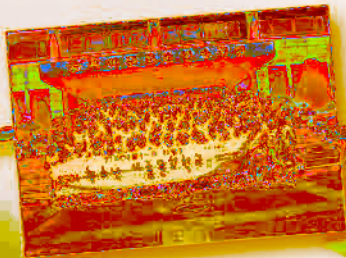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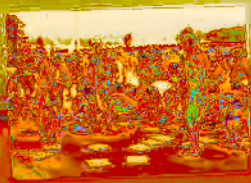
2004 금강생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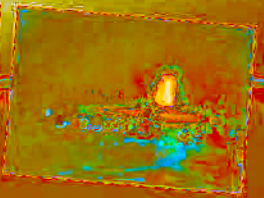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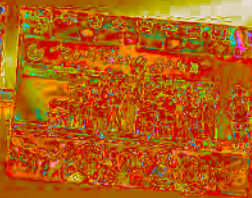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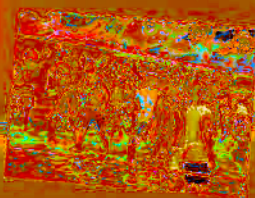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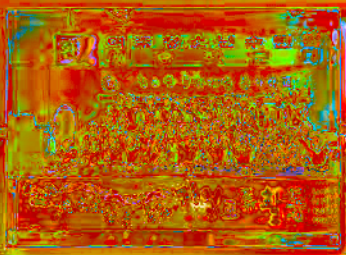
2004 아동수련회



2004 여름문화학교



2004 장애우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2004 지역교류활동

